

남미 최대시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적극 나선다

룰라 대통령 등 정·재계 인사 300여명 참석, 「한-브 비즈니스 포럼」 개최
 ‘한-브라질 통상·생산통합 협약’ 체결로 전략산업 분야 협력 기반 마련
 첨단제조업·핵심광물 및 소비재 등 협력방안 논의, 민간협력 MOU 6건 체결

산업통상부(장관: 김정관)와 브라질 외교부는, 2.23(월) 12시30분 서울 롯데 호텔에서,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,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한-브라질 비즈니스 포럼」을 공동 주최하였다. (붙임 행사 개요)

한국경제인협회와 Apex-Brasil(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)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, 첨단제조업·핵심광물, 인공지능(AI), 식품·미용·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.

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“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·투자 파트너로서, 한국은 자동차·조선·배터리 등 분야에서, 브라질은 핵심광물·항공기·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,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”고 평가하고, “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A)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”는 점을 강조하였다.

한편, 양국 정부는 금일 오전 한-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‘한-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’을 체결하여 첨단산업, 공급망, 디지털,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
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바이오·의약, 진단키트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MOU 5건, 무역·통상 분야에서 양국 경제단체 간 MOU 1건 등 총 6건의 협력 MOU가 체결되며, 정부 간 협력을 민간 차원의 구체적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 정부는 금번 정부 간 협약과 민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	책임자	팀 장	안응수 (044-203-5630)
	중남미대양주통상팀	담당자	주무관	이정민 (044-203-5633)
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팀 장	김선애 (02-2100-1370)
	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	담당자	사무관	이 연 (02-2100-1377)

□ 행사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6.2.23(월) 12:30~16:30 /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
- 주최 / 주관 : ^한산업통상부, ^브MDIC, ^브외교부 / ^한한경협, ^브ApexBrasil
- 참석 규모 : 300여명
 - (한 측) 산업통상부 장관, 한경협 회장, 기업인(126개사) 등
 - (브 측) 룰라 대통령, APEX 회장, ^브유관부처 장관, 기업인(154개사) 등
- 프로그램(안)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2:30-13:00 (30')	■ 개회사	APEX 회장, 브라질 산업부 차관, FKI 부회장
13:00-15:00 (120')	■ 패널 토론 세션 ①헬스·라이프스타일 및 창의산업 ②농식품 산업 ③첨단제조·전략광물 및 AI	
15:00-15:20 (20')	■ 특별 세션 브라질 투자환경, 산업·통상정책, 경제협력방안 소개	브라질 유관 부처 장관
15:20-15:30 (10')	■ MOU 교환식 및 사진촬영	
15:30-16:00 (30')	■ 커피 브레이크	
16:00-16:23 (23')	■ 폐회식	
	① 환영사	FKI 회장
	② 종합발표	APEX 회장
	③ 축사	산업통상부장관
	④ 폐회사	브라질 대통령